장흥군,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주민 숙원 해결' 총력

농어촌 생활 편의 향상 · 정주여건 개선 추진

올해 가을까지 추진 중인 사업 마무리 예정

장흥군은 올해 12억원을 들여 지역 간 균형발전과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용산면 외 4개면(안양, 장동, 장평, 유치)에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3월 조기 착공에 돌입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정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생활인프라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읍면단위 정비사업이다.

장흥군은 올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착공에 들어갔다.

영농기 이전에 공사의 70%를 완료할 목표로, 지역여건과 주민의견을 사전에 반영해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가을 이전까지는 발주된 모든 공사가 준공될 것으로 군은 내다봤다.

협소한 도로폭으로 안양면 목단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였던 목단마을 진입도로 정비사업은 작년 10월부터 4억여원을 투입하여 올해 6월 준공했다.

기존 도로폭을 7m의 폭으로 총 280m 구간을 확포장 한 이번 사업은 사전 행정협의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업 지지로 비교적 원활히 사업을 마칠 수 있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농어촌 지역의 생활 편의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며,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 데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군, 해양바이오 연구개발(R&D)사업 발굴 총력

포스트 코로나 대비 · 정부 연구개발 사업 선제 대응

완도군은 지난 15일 지역 주도의 해양바이오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남도 내 대학교 및 연구 기관이 참여하여 발굴한 해양바이오R&D(연구개발) 기획 과제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해조류 기능성 소재를 활용한 식 · 의약 소재 개발 및 연구개발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한 중앙부처 연구개발 사업의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이번 보고회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날 보고회는 신우철 완도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해양바이오연구센터와 조선대학교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의 기획 과제 발표 후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기관별 연구 과제는 정부의 R&D 정책 과제와 완도군 해조류를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의 육성에 부합하는 해조류 다당체 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 해조류 청각 유래 관절 개선 식 · 의약 소재 개발 등 2건이다.

먼저 해양바이오연구센터에서는 해조류에서 추출된 기능성 다당류를 활용해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제품 개발을 위한 소재은행과 빅데이터 시설 구축 방안에 대한 과제를 발표했다.

조선대학교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는 해조류 청각 추출물을 이용한 관절개선 기능성 소재 개발로 고령화에 의해 발병되는 만성질환인 관절염에 대해 의약품 원료로써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완도군은 이번에 발굴된 연구과제에 대해 2021년 정부 해양바이오 연구개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해조류는 다양한 기능성을 보유하고 있어 바이오 소재로써 활용 가치가 높다."며 "꾸준한 연구를 통한 산업 소재 개발로 해조류를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진도군,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 모집

8월부터 11월까지 39명

진도군이 코로나19로 인한 취업 취약 계층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희망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총 2억여원을 투입,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해양환경기동대와 소공원 조성 등 4개 분야 3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희망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실직 등 위기에 처한 취약 계층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대상은 만 18세 이상 진도군민으로 취업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실직과 폐업 등을 경험한 자를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희망 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오는 27일까지 진도군청 환경산림과와 읍 ·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진도=조상용 기자

강진군, 도농상생 공공급식 확대로 지역농산물 판로 확대

강진군은 서울시 동작구와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MOU를 체결한 것을 계기로 직거래 판로 확대를 통해 수도권 고정 소비자층 확보에 본격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군동면에 330㎡(1동)의 공공급식 센터를 건립하고 강진산 쌀과 축산물 등을 동작구 급식시설 170개소(어린이집, 복지회관 등)에 납품하고 있다. 2018년 12월 첫 공급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12억7천만 원의 물량이 공급됐다.

도농상생 서울시 공공급식 지원사업은 도농 자치구와의 1:1 매칭 및 MOU를 통해 기존 5~7단계에 달했던 복잡한 유통구조를 산지와의 직거래 방식으로 개선한 것이다.

특히, 군은 공공급식 납품사업을 계기로 로컬푸드 직거래를 활성화해 관내 학교급식 식자재에 강진산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군은 2020년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서울시 학교급식 Non-GMO 가공식품 공급사업에도 전국에서 3개소 중 1곳의 공급업체로 선정돼 올해만 11억이 넘는 농수산물을 서울시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농산물의 유통구조가 대부분 오프라인이었다면 이제는 날이 갈수록 유통패턴이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다.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조화로운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며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총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해남군 "전남형 예비 사회적기업 도전하세요"

해남군은 오는 23일까지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대상을 공모한다.

사회적기업이란 이윤창출 등 영리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사회에 환원하는 고용노동부 인증기업을 말한다. 또한 예비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하는 예비단계를 의미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2년 동안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등에서 제공하는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는 등 혜택도 제공된다.

또 기존에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은 이번 공모사업기간에 인건비 지원사업인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인력 채용시 최저임금과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4대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사업아이템을 개발하거나 기술을 개발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까지 확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재정지원사업 모두 사회적기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 및 참여서식은 해남 소통넷과 해남군 홈페이지 고시 · 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